



한국은행
THE BANK OF KOREA

국제경제리뷰

조사국
국제경제부 국제종합팀
이창기 과 장(4259)
김지은 조사역(5296)

국제원유시장 여건 점검 및 전망

- ◆ (검토 배경) 장기간 배럴당 50달러대 미만의 저유가 기조를 지속하던 국제유가는 2017.6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하여 최근 70달러선에 근접(Brent유 기준)하면서 향후 유가흐름에 대한 관심이 고조

⇒ 국제원유시장 여건을 수요·공급, 금융환경 및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 점검해 보고 세계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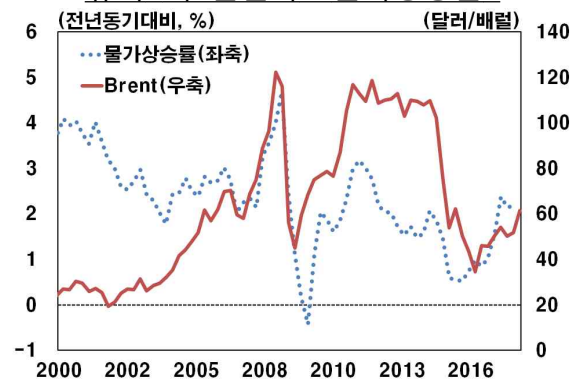
- ◆ (수요여건) 세계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함께 글로벌 원유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
- EIA(U.S.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) 등 에너지 기구는 금년중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율(1.8%)이 지난해 수준(1.7%)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
 - 다만 앞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 및 실질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져 원유수요 증가가 제약될 가능성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%)

	전망시점	2015	2016	2017 ^e	2018 ^e
IMF	18.1월			3.7	3.9
OECD	17.11월			3.6	3.7
World Bank	18.1월	3.4	3.2	3.7	3.7
Global Insight	17.12월			3.7	3.8
6개 IB 평균	17.12월			3.8	3.9

자료: 각 기관

유가¹⁾와 선진국²⁾ 물가상승률¹⁾



주: 1) 분기 기준 2) OECD 회원국 기준
자료: Bloomberg, OECD

- ◆ (공급여건)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선에 근접하면서 셰일오일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유가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가 조기 종료되거나 감산합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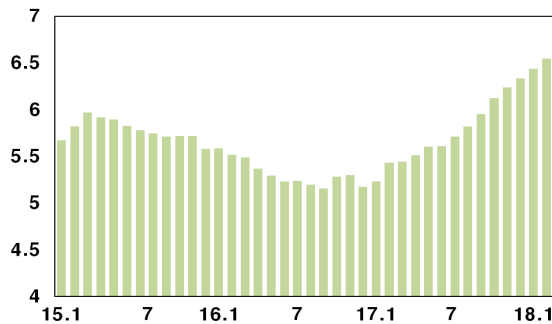
- 지난해 미국의 미완결유정*이 꾸준히 늘어나 셰일오일의 단기간내 증산여력이 크게 확대

* 장기간의 공정이 소요되는 시추단계는 종료되었으나 완결단계에 이르지 않은 유정(drilled but uncompleted well)으로 30일내 셰일오일 생산이 가능

배부처 : 총재, 부총재, 금통위원, 감사, 부총재보, 외자운용원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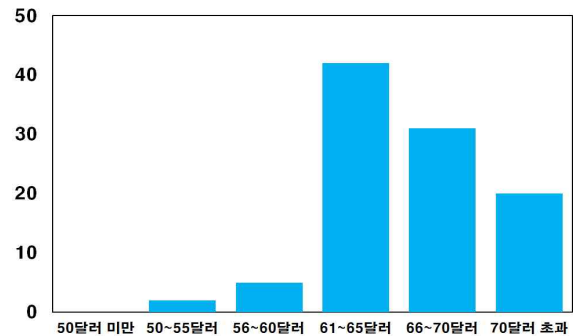
- Dallas 연준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에너지기업중 42%는 국제유가(WTI 기준)가 61~65달러에 도달하는 경우 시추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응답

미국 셰일오일 생산량¹⁾(백만배럴/일)



주: 1) 2018.1~2월은 전망치
자료: EIA

시추기수 증설에 필요한 유가수준¹⁾²⁾(%)



주: 1) WTI 기준
2) 시추활동 강화응답 업체의 비중(%)
자료: FRB Dallas 설문조사 결과(2017.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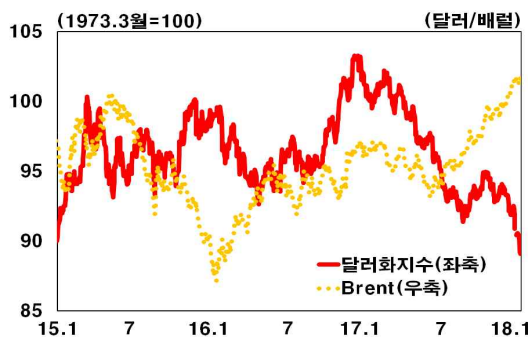
- 미국 이외 일부 산유국도 셰일오일 증가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, 환율절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감산합의에서 벗어나 증산에 나설 가능성
- 이란 석유부 장관은 상당수 OPEC국가가 셰일오일 증산을 우려하여 유가가 60달러를 초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(1.9일)
- 지난해 감산이행률 50% 내외로 감산합의에 소극적이던 이라크는 석유인프라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원유생산능력을 확충*

* 이라크 원유생산능력 : 2016년말 일평균 470만배럴 → 2018년초 일평균 500만배럴 내외

◆ (금융여건 및 지정학적 리스크) 금년중 달러화 가치는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 약화 및 세계경기 개선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확대로 2017년에 이어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달러화 가치 약화는 통상 유가상승압력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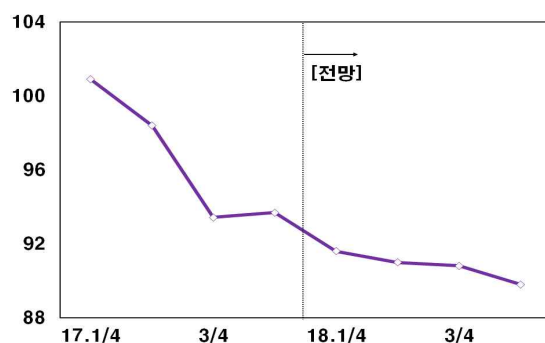
- 2011년 이후 달러화지수와 국제유가간 상관계수는 -0.95로 밀접한 역의 관계를 시현

달러화지수 및 유가



자료: Bloomberg

달러화지수 전망¹⁾²⁾(1973.3월=100)



주: 1) 1.25일 기준 2) 29개 투자은행 중간값
자료: Bloomberg

○ 또한 이란, 베네수엘라 등 OPEC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우려

◆ (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)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모멘텀 강화 및 달러화 약세는 유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유가상승세 지속시 셰일오일 증산 등 공급측면의 하방압력과 실질구매력 약화로 인한 수요측면의 하방압력도 커질 전망

○ 주요 예측기관들은 현재의 유가수준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▪ 2017년중 글로벌 원유시장은 초과수요를 나타내었으나 금년중에는 초과공급으로 전환될 전망

○ 다만, 셰일오일 증산에도 불구하고 셰일오일 업체의 생산성 개선여력 약화, 장비임대료·인건비 및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셰일오일밴드(Shale Band)*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

* 셰일오일 업체의 손익분기 가격을 기준으로 마진이 확보되는 국제유가의 일정구간(45~60달러)을 의미

▪ 또한 주요 산유국의 정치·경제 상황 전개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일 소지

주요 예측기관의 국제유가 전망¹⁾

		2017년	2018 ^{e)}				
			1/4	2/4	3/4	4/4	연간
CERA	(1.17일)	54.4	61.6	57.1	59.3	58.7	59.2
EIA	(1. 9일)		59.7	58.0	60.0	61.3	59.7
OEF	(1.29일)		72.0	69.0	65.0	65.0	67.8
IMF ³⁾	(1.22일)	52.7	-	-	-	-	59.9

주: 1) Brent 기준 2) ()내는 전망시점 3) Brent, Dubai, WTI 3개 유종 평균
자료: CERA, EIA, OEF, IMF

목 차

I. 검토 배경	4	2. 공급여건	7
II. 국제원유시장 여건	5	3. 금융여건 및 지정학적 리스크	12
1. 수요여건	5	III.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	15

I

검토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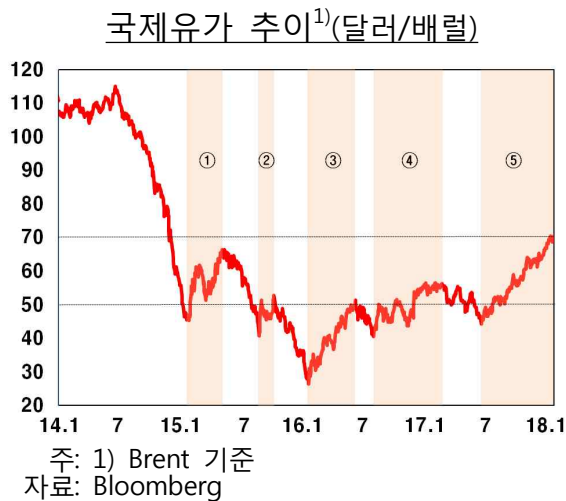
□ 장기간 배럴당 50달러대 미만의 저유가 기조를 지속하던 국제유가는 2017.6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하여 최근 70달러선에 근접(Brent유 기준)

○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,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 연장, 중동 지역의 정정불안 및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*가 유가상승 압력으로 작용

* 한파에 따른 수요 급증 등으로 미국 원유재고의 감소세가 확대(전월대비, 2017.11월 - 0.2% → 12월 - 4.4% → 2018.1.1~19일 - 5.1%)

○ 금번 강세국면* 기간은 저유가 기조가 시작된 2015년 이후 5번의 강세국면중 가장 길며 상승폭(59.3%)은 2016년 상반기(79.7%) 다음으로 높은 수준

* 강세국면은 유가가 직전 저점대비 20% 이상 상승한 기간으로 정의



강세국면별 유가 변동

시 기	지속기간 (일, A)	상승폭 (%, B)	B/A
① 15.1.26 ~ 15. 5. 5	100	47.7	0.48
② 15.8.24 ~ 15.10. 8	46	29.4	0.64
③ 16.1.20 ~ 16. 6. 8	141	79.7	0.57
④ 16.8. 2 ~ 17. 2. 3	186	39.1	0.21
⑤ 17.6.21 ~ 18. 1.24	218	59.3	0.27

자료: Bloomberg

□ 향후 유가상승이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및 경제주체의 실질구매력 하락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흐름에 유의할 필요

⇒ 국제원유시장 여건을 수요·공급, 금융환경 및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 점검해 보고 세계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II

국제원유시장 여건

1. 수요여건

(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)

□ 세계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함께 글로벌 원유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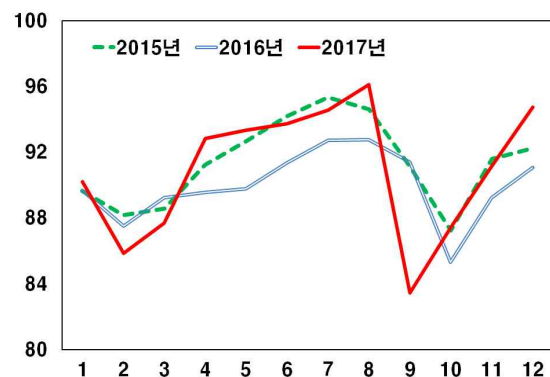
- IMF 등 주요 예측기관이 금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미국 정유시설의 가동률이 큰 폭 상승
 - 2017.12월말 미국 정유시설의 가동률은 주간기준 96.7%로 2005.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%)

	전망시점	2015	2016	2017 ^{e)}	2018 ^{e)}
IMF	18.1월			3.7	3.9
OECD	17.11월			3.6	3.7
World Bank	18.1월	3.4	3.2	3.7	3.7
Global Insight	17.12월			3.7	3.8
6개 IB 평균	17.12월			3.8	3.9

자료: 각 기관

미국 정유시설 가동률(%)



자료: EIA

- EIA(U.S.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) 등 에너지 기구는 금년중 글로벌 원유수요 증가율이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
 - 중국*의 성장감속에도 불구하고 인도, 브라질 등 신흥국의 원유수요가 크게 증가

* 세계 원유수요 비중(2017년 기준, %): 미국 20.1, 중국 13.1, 인도 4.6 브라질 3.1

글로벌 원유¹⁾수요²⁾ 증가율(%)

	(비중) ³⁾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 ^{e)}
OECD(A)	47.9	1.4	0.8	1.0	1.0
미국	20.1	2.2	0.6	1.2	1.9
유럽	15.0	2.0	1.5	1.8	0.7
일본	4.0	-3.0	-2.4	-2.5	-2.9
비OECD(B)	52.1	2.4	2.1	2.3	2.6
중국	13.1	6.5	3.1	3.9	2.7
전체(A+B)	100.0	1.9	1.5	1.7	1.8

주 : 1) 원유 및 석유제품 포함 2) EIA 및 CERA의 자료 평균(일본은 EIA)

3) 2017년 전체 수요 대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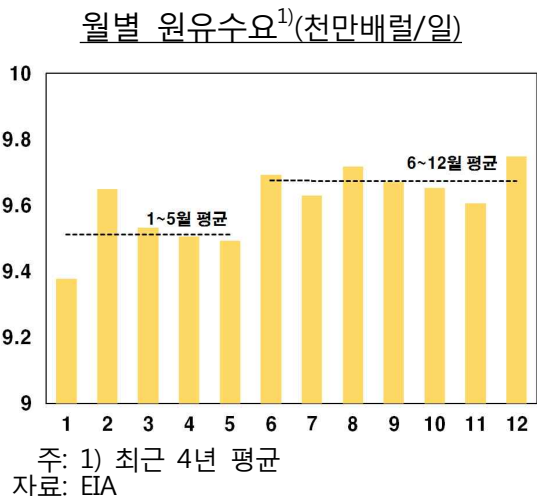
자료 : EIA, CERA

□ 다만 앞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 및 실질구매력 하락*으로 이어져 원유수요 증가가 제약될 전망

* 유가가 10% 상승하는 경우 미국 및 유로지역의 GDP는 각각 0.16~0.31% 및 0.06~0.20% 감소하며 인플레이션(CPI 기준)은 각각 0.17~0.41%p 및 0.10~0.31%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(스웨덴중앙은행, 2015.2월)

○ 유가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는 계절적 수요 둔화 기간*(1~5월)중 원유수요 둔화폭을 한층 가속화할 소지

* 정제시설 유지보수, 비드라이빙 시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통상 1~5월중 원유수요는 여타 시기에 비해 약 1.7% 축소



○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은 유가 급락기(2014.6월~2016.1월)에 유류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였는데 급변 유가상승의 영향이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

국가별 유류보조금 제도 변경

국가	변경시기	변경내용
인도	2014.10월	디젤 보조금 폐지
말레이시아	2014.12월	가솔린 및 디젤 보조금 모두 폐지
인도네시아	2015.1월	가솔린 보조금 폐지, 디젤 보조금 상한 설정
U A E	2015.8월	가솔린 보조금 폐지

자료: Energy Insights

2. 공급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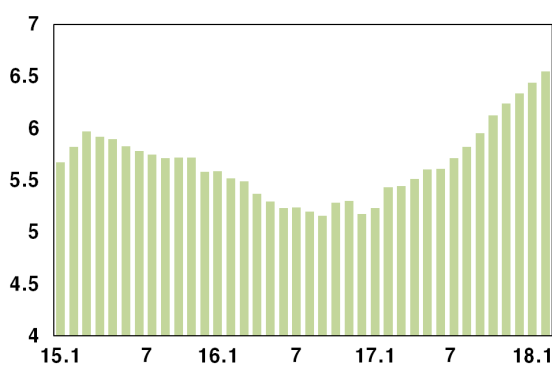
(세일오일 생산의 증가세 확대)

□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선에 근접하면서 세일오일 생산의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

- 2016년초 20달러대까지 하락한 유가가 2017년초 50달러대까지 상승함에 따라 세일오일 생산이 증가 전환(2017년중 연간 8.1% 증가)
- 지난해 미국의 미완결유정*이 꾸준히 늘어나 세일오일의 단기간내 증산 여력이 크게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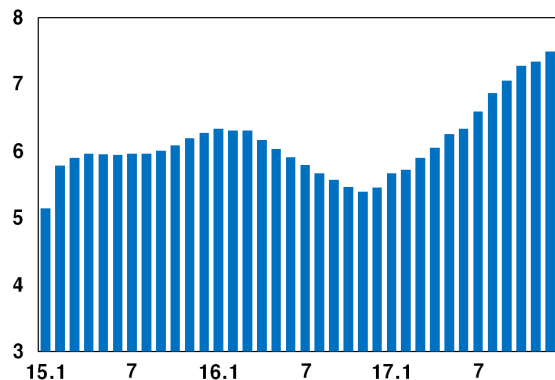
* 장기간의 공정이 소요되는 시추단계는 종료되었으나 완결단계에 이르지 않은 유정 (drilled but uncompleted well)으로 30일내 세일오일 생산이 가능

미국 세일오일 생산량¹⁾(백만배럴/일)



주: 1) 2018.1~2월은 전망치
자료: EIA

미국 미완결유정(천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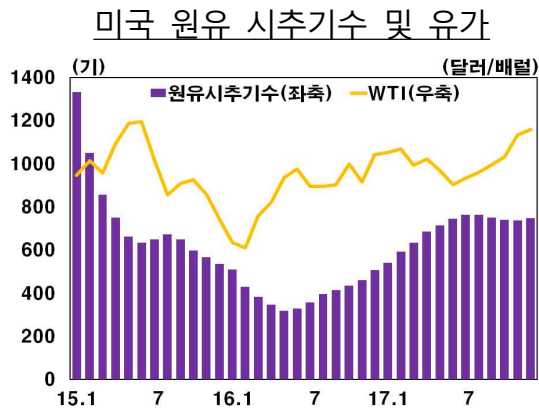
자료: EIA

- 또한 EOG Resources, Pioneer Nature Resources 등 상당수 세일오일 기업은 유가 상승으로 시추기수를 더 늘릴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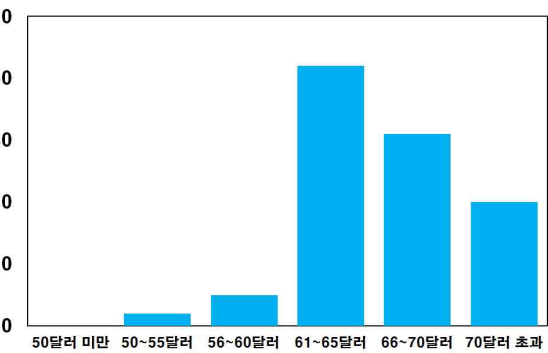
- Dallas 연준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에너지기업*중 42%는 국제유가 (WTI 기준)가 61~65달러에 도달하는 경우 시추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응답(2017.12.28일)

* 134개 기업(77개의 석유개발회사 및 57개의 유전서비스회사)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

- 시추기수는 세일오일 생산에 대해 6개월 내외 선행하는 것으로 추정 (EIA, 2017.12월)



시추기수 증설에 필요한 유가수준¹⁾²⁾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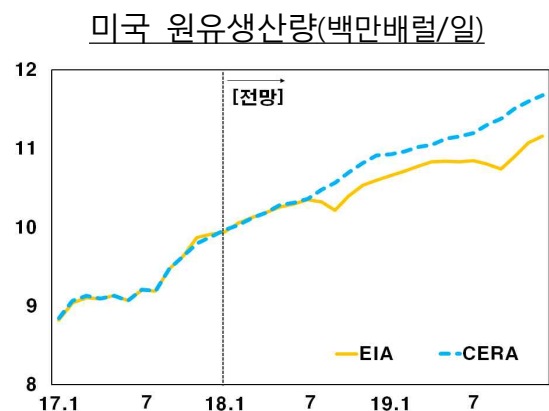
자료: FRB Dallas 설문조사 결과

□ 아울러 미국 셰일오일 기업은 판매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가하락에도 대비하기 위해 헷지물량을 크게 확대

- 상업거래자*의 원유선물·옵션 매도포지션이 2017.6월말 147만계약에서 2018.1월말 현재 188만계약으로 급증

*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는 원유 선물거래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참가자를 상업거래자(생산자 및 수요자)로 정의

- EIA 및 CERA는 금년중 미국 원유생산 증가율(각각 10.5% 및 11.8% 예상)이 지난해(5.0%)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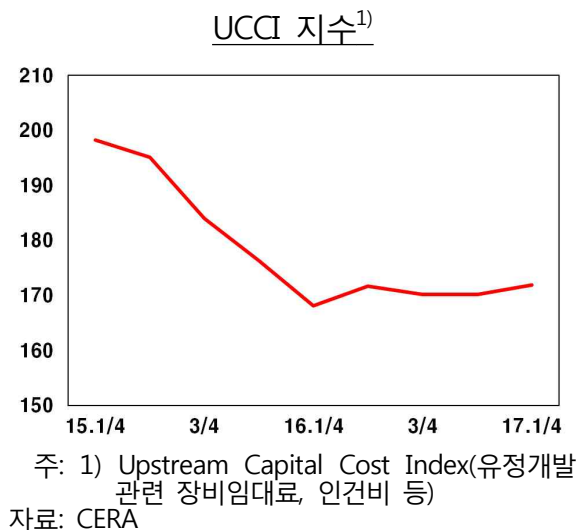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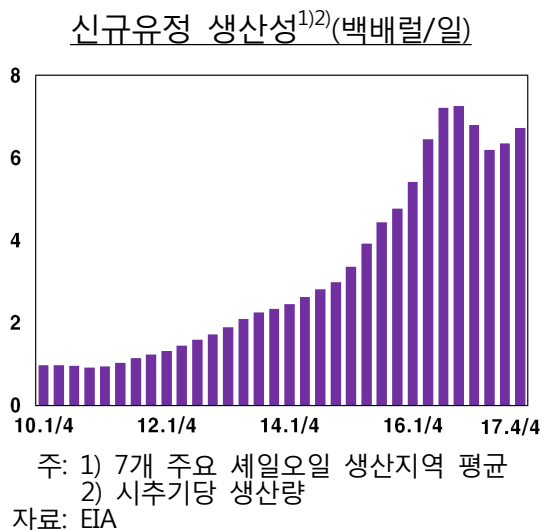


□ 한편 셰일오일 증산 전망에도 불구하고 셰일오일 업체의 생산성 개선여력 약화, 장비임대료·인건비 및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셰일오일 생산비용 및 손익분기유가*는 종전 수준을 상회할 전망

* 국제유가는 최근 셰일오일 업체의 손익분기 가격을 기준으로 마진이 확보되는 일정 구간(45~60달러)에서 등락을 반복

- 기존 셰일오일 유정은 생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원가절감 효과가 점차 축소
 - 신규유정의 생산성(7개 주요 셰일오일 생산지역 평균 기준) 증가세는 2016년 이후 둔화되는 모습
- 그간 큰 폭 하락하였던 장비임대료 및 전문시추인력 인건비가 셰일오일 생산 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본격적으로 상승할 조짐
 - 업스트림 부문*의 자본비용지수(upstream capital cost index, 인건비 포함)가 2017년 들어 소폭 상승

* 석유화학 분야에서 유전의 탐사, 개발 및 원유 생산까지의 단계를 의미하며 원유 정제, 수송·판매, 석유화학제품 생산 단계의 다운스트림(downstream)과 구분



- 또한 연준의 금리정상화 기조로 셰일오일 업체의 자금조달비용도 점차 증가*할 것으로 예상

* Libor 금리(3개월)가 1.3%에서 2.0%로 상승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(CCC- ~ B+) 셰일오일 업체의 신규자금 조달 이자비용이 30% 증가할 것으로 추산(CGEP, 2017.5월)

(감산합의 이완 가능성)

-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(OPEC 14개국, 비OPEC 10개국)은 지난해 11.30일 OPEC 정기총회에서 감산합의기간 연장(2018.3월 → 2018.12월), 감산면제국인 나이지리아 및 리비아의 생산량 상한* 설정 등에 합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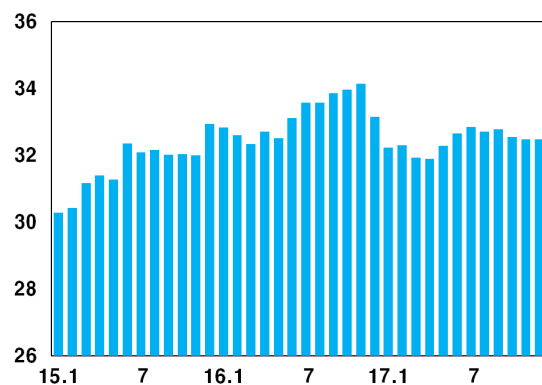
* 나이지리아 및 리비아에 대한 원유생산량 한도를 각각 2017.1~10월중 최고 수준인 180만배럴(하루기준) 및 100만배럴로 설정

- 주요 산유국의 감산규모는 일평균 180만 배럴을 유지(OPEC국가: 120만배럴, 비OPEC국가: 60만 배럴)
 - 글로벌 원유재고 수준을 최근 5년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
- 또한 차기 OPEC 총회(2018.6월 예정)에서 원유재고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감산지속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

최근 감산합의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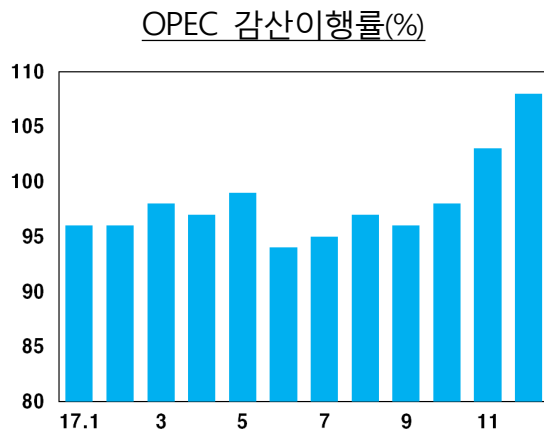
일자	내용
16.11.30일	▶ OPEC 국가는 2017.1~6월중 원유생산 상한을 일평균 3250만배럴로 설정(120만배럴 감소)
16.12.10일	▶ 비OPEC도 일평균 60만배럴 감산에 합의
17.5.25일	▶ 감산합의 기간을 2018.3월 까지 연장
17.11.30일	▶ 감산합의 기간을 2018년말 까지 연장

OPEC 원유생산량(백만배럴/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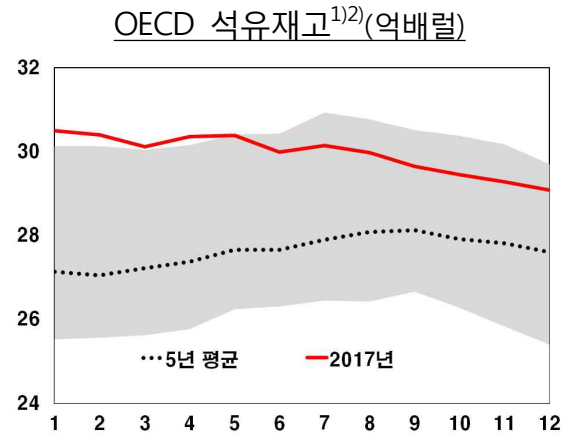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

- 그러나 최근의 유가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가 조기 종료되거나 감산합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
- 글로벌 원유재고의 감소세가 지난해 8월 이후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감산합의 종료일(2018.12월말) 이전에 감산합의의 최종목표(원유재고의 최근 5년 평균 수준 감축)에 도달할 소지



자료: Reuters



주: 1)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 포함
2) 음영은 2012~2016년 범위
자료: EIA

○ 또한 셰일오일 증가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, 환율절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일부 국가가 증산에 나설 가능성

- Bijan Zanganeh 이란 석유부 장관은 상당수 OPEC국가가 셰일오일 증산을 우려하여 유가가 60달러를 초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(1.9일)

- 러시아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루블화 절상 및 수입물가 하락으로 원유이외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물가하락압력이 증대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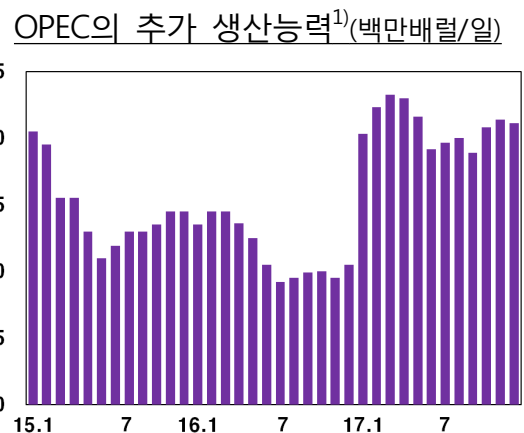
* 러시아 Lukoil사 CEO는 유가가 70달러를 상회할 경우 감산 출구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(1.13일)

- 지난해 감산이행률 50% 내외로 감산합의에 소극적이던 이라크는 석유인프라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원유생산능력을 확충*

* 이라크 원유생산능력 : 2016년말 일평균 470만배럴 → 2018년초 일평균 500만배럴 내외



자료: Bloomberg



주: 1) 생산능력 - 생산량
자료: EIA

3. 금융여건 및 지정학적 리스크

(달러화 약세 지속)

- 금년중 달러화 가치는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 약화 및 세계경기 개선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확대로 2017년에 이어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달러화 가치 약화는 통상 유가상승압력으로 작용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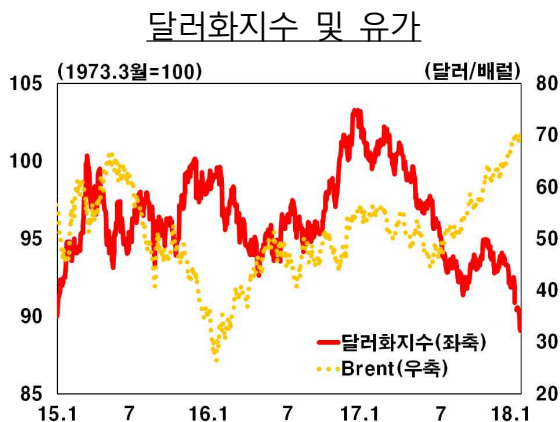
* 원유는 주로 미 달러화로 결제될 뿐만 아니라 달러표시 자산의 가치 변동을 헤지하는 투자상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는 원유수출국의 달러표시 단가 상승 및 원유 투자규모 증가를 초래

-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보이던 미 달러화는 지난해 초 약세로 돌아서 2017.1~2018.1월중 13% 절하된 가운데 국제유가(Brent유 기준)는 25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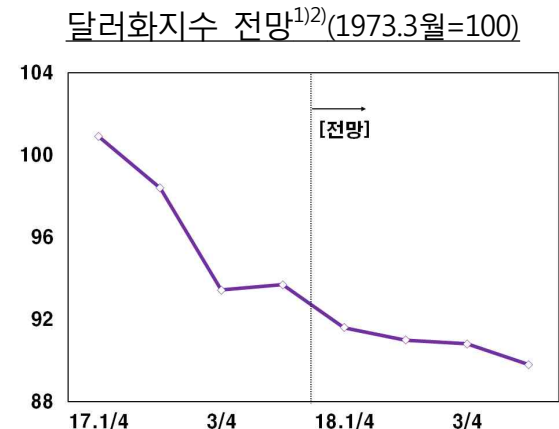
- 2011년 이후 달러화지수와 국제유가간 상관계수는 -0.95로 밀접한 역의 관계를 시현

	2001~2010년	2011~2017년
▶ 달러화지수와 국제유가의 월간 상관계수 ¹⁾	-0.81	-0.95
주: 1) Brent유 기준		자료: Bloomberg

- 다만 2016.11월~2017.6월과 같이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, 셰일오일 증산 등 공급측 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경우 양자간 관계가 미약해지는 상황도 발생 가능



자료: Bloomberg



주: 1) 1.25일 기준
2) 29개 투자은행 중간값
자료: Bloomberg

(지정학적 리스크 우려)

□ (이 란) 핵협정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간 갈등으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재개 될 경우 이란의 원유수출 차질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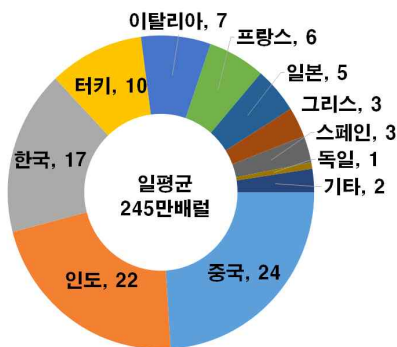
- 이란의 핵협정* 미준수를 선언(2017.10월)한 트럼프 행정부는 對이란 경제제재 재개 결정을 120일간 유예(2018.1.12일)하고 이란에 대해 ICBM 개발 금지 등 핵협정의 개정을 요구

* 미국, 러시아, 중국, 프랑스, 영국 및 독일과 이란은 2015.7월 이란의 핵폐기 협정을 체결하고 2016.1월부터 대이란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

- 이란의 직접적인 對미국 원유수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, 미국의 경제제재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, 기업,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하기 때문에 경제제재시 이란의 원유생산이 크게 감소*할 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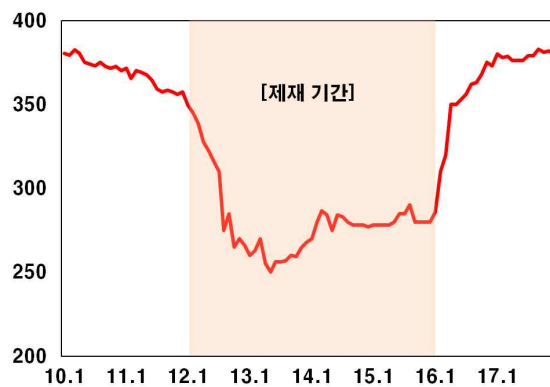
* 2012년 대이란 경제제재 직후 이란의 원유생산은 제재이전의 2/3 수준으로 감소

이란 원유수출의 국가별 비중¹⁾(%)



주: 1) 2017년 상반기 기준
자료: CERA

이란 원유생산량(만배럴/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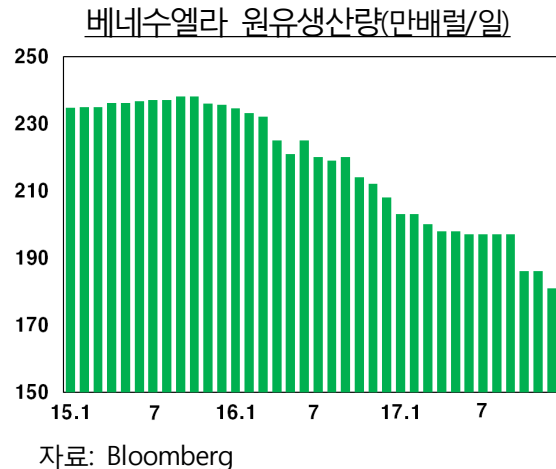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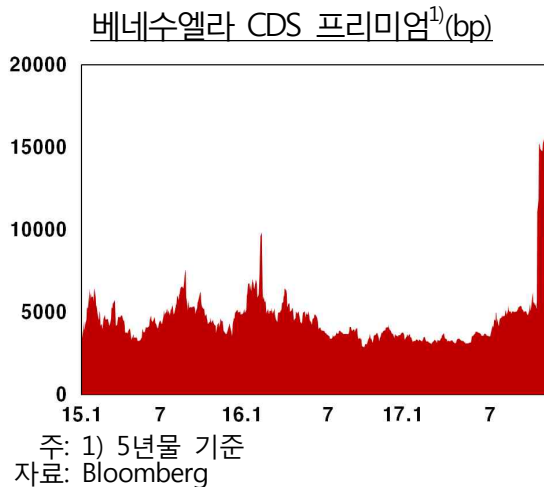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

□ (베네수엘라)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부진, 미국의 경제제재 등으로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위험이 높아지면서 원유생산* 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소지

*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은 2016.12월 일평균 208만배럴에서 2017.12월 181만배럴로 27만배럴 감소(Bloomberg)

- CERA는 2018년 및 2019년중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이 각각 일평균 45만배럴 및 22만배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



- (이라크) 금년중 예정된 총선(5.12일)을 전후하여 쿠르드족과 이라크 정부간 갈등*이 재점화되면서 쿠르드 자치지역의 원유생산 차질이 확대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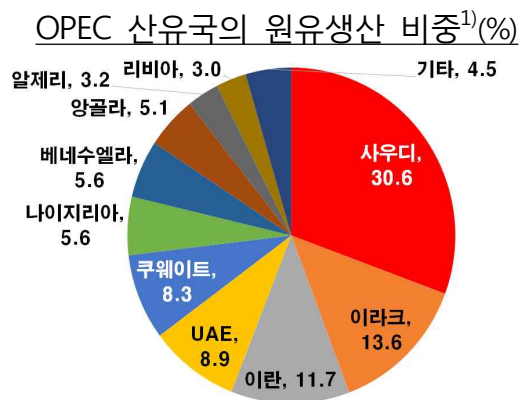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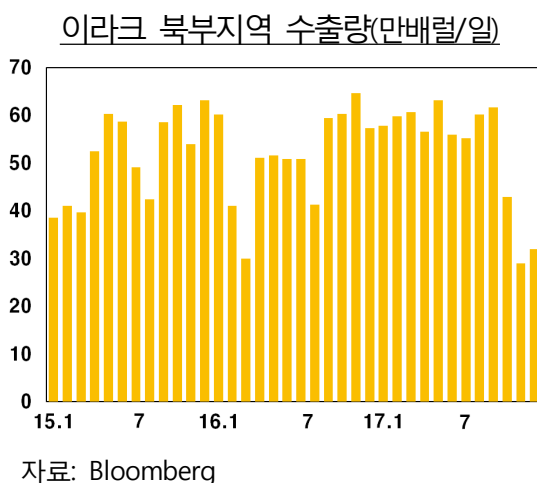
* 2017.9.25일 쿠르드족의 독립투표로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휴전협정(2017.10.27일)을 통해 진정국면에 진입

- 지난해 쿠르드족 독립분쟁 이후 쿠르드 자치지역 유전*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게 됨에 따라 동 지역의 원유수출이 종전보다 50% 내외 감소

* 쿠르드 자치지역의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이라크 전체의 약 30% 및 10%를 차지

- (사우디아라비아) 왕세자로 책봉(2017.6.21일)된 무함마드 빈 살만의 강력한 외교노선 등으로 이란 및 친이란 세력(예멘 반군, 레바논, 카타르 등)과의 분쟁 위험이 증대

- 또한 왕세자와 반대세력간 권력투쟁으로 정정불안 심화 가능성도 상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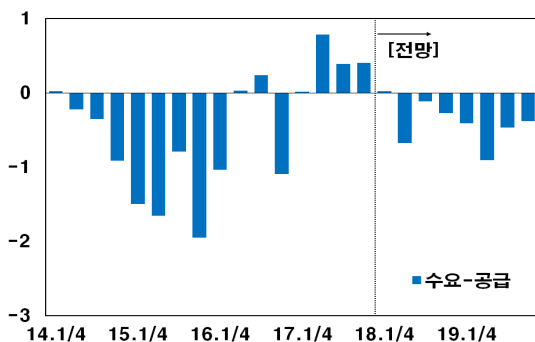
주: 1) 2017.12월 기준
자료: Bloomberg

Ⅲ

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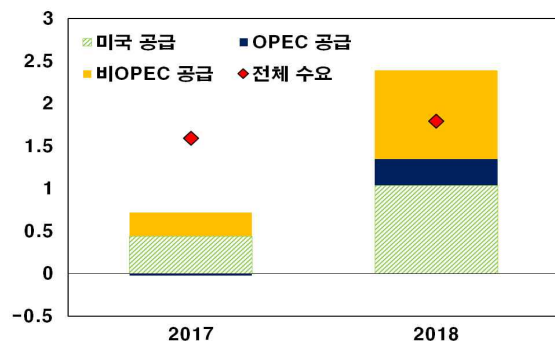
-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모멘텀 강화 및 달러화 약세는 유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유가상승세 지속시 셰일오일 증산 등 공급측면의 하방압력과 실질구매력 약화로 인한 수요측면의 하방압력도 커질 전망
 - 최근 국제유가가 70달러선에 근접하면서 미국 셰일오일 업체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일부 감산합의 참여국의 이탈 가능성도 점증
- 주요 예측기관들은 현재의 유가수준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 - 2017년중 글로벌 원유시장은 초과수요를 나타내었으나 금년중에는 초과공급으로 전환될 전망(EIA, CERA, 2018.1월)
 - 원유수요의 증가폭이 전년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미국 셰일오일 업체의 생산량 증가, 산유국의 감산합의 이행률 하락 등으로 원유 공급은 확대

세계 원유 초과수요¹⁾ 경로(백만배럴/일)



주: 1) EIA, CERA 전망치의 평균
자료: EIA, CERA

원유 공급¹⁾ 및 수요 증감²⁾
(전년대비, 백만배럴/일)



주: 1) 비OPEC 공급은 미국 제외
2) EIA, CERA 전망치의 평균
자료: EIA, CERA

- IMF는 금년중 연평균 유가(Brent, Dubai, WTI 3개 유종 평균)를 연초 수준(1.26일 현재 67.9달러)보다 낮은 배럴당 59.9달러로 예상

주요 예측기관의 국제유가 전망¹⁾

		2017년	2018 ^{e)}				
			1/4	2/4	3/4	4/4	연간
CERA	(1.17일)	54.4	61.6	57.1	59.3	58.7	59.2
EIA	(1. 9일)		59.7	58.0	60.0	61.3	59.7
OEF	(1.29일)		72.0	69.0	65.0	65.0	67.8
IMF ³⁾	(1.22일)	52.7	-	-	-	-	59.9

주: 1) Brent 기준 2) ()내는 전망시점 3) Brent, Dubai, WTI 3개 유종 평균
자료: CERA, EIA, OEF, IMF

□ 다만, 셰일오일 증산에도 불구하고 셰일오일 업체의 생산성 개선여력 약화, 장비임대료·인건비 및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셰일오일밴드(Shale Band)*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

* 셰일오일 업체의 손익분기 가격을 기준으로 마진이 확보되는 국제유가의 일정구간 (45~60달러)을 의미

○ 또한 주요 산유국의 정치·경제 상황 전개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일 소지

▪ 지난해 하반기 들어 고조되었던 산유국의 정정불안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나 주요 선거일정* 등을 전후로 다시 확대될 우려

* 이집트 대선(3월), 베네수엘라 대선(4월), 이라크 총선(5월), 레바논 총선(5월) 등

《참고자료》

- 김지은, “2017년 상반기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하반기 여건 점검”, 국제경제리뷰, 한국은행, 2017.7월
- 스웨덴중앙은행, “Effects of the falling oil price on the global economy”, Monetary Policy Report, 2015.2월
- 신원섭·안상준, “고유가시대 장기화: 가능성과 영향”, 한국은행, 2008.2월
- 이광우, “2017년 국제석유시장 평가와 향후 전망”, 에너지경제연구원, 2018.1월
- 이재원·정준우·조인우, “국제석유시장 여건과 저유가의 파급영향”, 국제경제리뷰, 한국은행, 2016.1월
- 이재원·조인우, “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”, 국제경제리뷰, 한국은행, 2016.4월
- Andreas Breitenfellner·Jesus Crespo Cuaresma, “Crude oil prices and the USD/EUR exchange rate”, RePEc, 2008.1월
-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, “Reserve Base Lending and The Outlook for Shale Oil and Gas Finance”, 2017.5월
- CERA, “Global Crude Oil Markets Short-Term Outlook”, 매월
- CERA, “Top 10 Issues for Global Oil Markets in 2018”, 2018.1월
- EIA, “Short-Term Energy Outlook”, 매월
-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, “Dallas Fed Energy Survey”, 2017.12.28일
- IMF, “World Economic Outlook”, 2018.1.22일
- Lutz Kilian, “Not All Oil Price Shocks Are Alike: Disentangling Demand and Supply Shocks in the Crude Oil Market”, CEPR, 2008.1월
- OPEC, “Monthly Oil Market Report”, 2018.1.18일
- Oxford Economics, “Commodity Price Forecasts”, 매월
- WorldBank, “With the Benefit of Hindsight: The Impact of the 2014-2016 Oil Price Collapse”, Global Economic Prospects, 2018.1월